

2월13일(월)/약2:1~13 (2)

**제목: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10절). 만약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11절). 사람이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침범하면 그는 율법 전체에 대한 침범자가 된다. 이 교훈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정신이 번뜩 들게 만든다.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 최후까지 잘해야 정말 잘한 것이 된다는 말이다. 사람이 일생동안 수 많은 옳은 일을 하고 살았다 할찌라도 오직 하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인생 전체가 손상당할 수 있다. 어떤 위인이나 성자 중에는 사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생전의 죄악이 드러난 경우이다. 아홉가지 십계명을 다 지키고도 한 가지를 안 지켜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벧전5:8).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런 당부를 한다. 너희는 항상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2절). 심판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행동해야 그나마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2월14일(화)/약 2:14~26 (1)

**제목: 안 도와 주려면 연민도 가져서 안된다.**

야고보는 행위를 유독 강조한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 야고보는 더 결정적인 말을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0절).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18절).. 험벗고 배고픈 자에게 말로만 위로하고 싶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위선이고 거짓이다(15~16절)..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무수한 위로의 ‘말’ 이 찬물 한 그릇 보다 위력이 없을 때가 있다. 위로를 실제적인 도움으로 바꾸어야 한다. 야고보는 ‘말’ 로 다 하려는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다. 갈증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물’ 이다. 물이 실질적이다. 물 한 그릇이 백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세다. 연민과 동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연민과 동정을 느낄 권리도 없다. 도와 줄 마음이 전혀 없으면 연민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2월15일(수)/약 2:14~26 (2)

**제목: 나의 믿음은 유효합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4절)라는 말에 대해 두 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예이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21절).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은 입증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하였고 그것으로 그는 완전하게 되었다(22절). 둘째는 기생 라합의 예이다. 라합은 자기들의 고국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온 적국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25절). 라합이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행동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간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까지 넘쳐흘러야 한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직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유효한 것일까?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아닐까?

2월16일(목)/약3:1~12 (1)

**제목: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혀**

야고보는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사람의 혀도 그렇게 길들여야 한다고 한다(3절). 왜냐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대단히 위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 이라고 했다(6절). 불은 삼시간에 모든 것을 태우듯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삼시간에 사람의 모든 공적과 인격을 태워 없앤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진정으로 완전한 자라고 했다(2절). 배의 핸들인 ‘키’ 는 배 전체의 향로를 결정짓는다(4절). 혀도 이와 같은 인생의 향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열 사람의 귀에다 대고 하는 가벼운 소근거림으로도 그를 영원히 주저 앓힐 수도 있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람이 혀를 사용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 성경은 무조건 침묵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오직 혀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만을 주장한다. 칼이 위험하다고 늘 칼집에 꽂아두어서는 안된다. 혀로 타인을 즐겁게, 유익하게, 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자질 하는 혀, 비방하는 혀, 악평하는 혀는 자기도 태우고 남도 태워 죽인다. 그것은 불이다. 감싸주는 혀, 용납하는 혀, 칭찬하는 혀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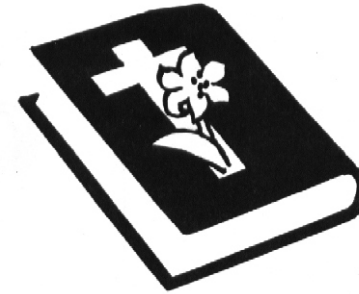
2월17일(금)/약3:1~12 (2)

**제목: 혀의 기적을 이룹시다.**

야고보는 짐승과 새와 벌레와 생물은 길들일 수가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7절). 로마 사람들은 자기 집 뜰에 있는 연못 속의 물고기를 훈련시켜서 손님들에게 구경시켜 주었다고 한다. 로마 신전 뜰에서는 뱀을 훈련시켜서 병에 걸린 사람들의 몸에 기어오르도록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병이 떠난다고 믿었는데 물론 그것은 미신이였다. 물고기를 훈련시키고 뱀을 훈련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지로 가능한 일이었다. 물고기와 뱀을 훈련시키는 일 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입술 안에 있는 혀라고 한다(8절). 그만큼 혀는 훈련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혀는 그만큼 고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훈련이 안된 크리스천은 예수를 찬송하는 그 혀로 동시에 악평과 험담과 쌍욕을 동시에 낸다(9~12절). 이 훈련이 안된 크리스천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성자의 혀를, 가정에서는 악마의 혀를, 주일에는 목사의 혀를, 월요일부터는 건달의 혀를 가진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혀를 훈련시켜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을 이룬 기적이다. 크리스천은 이 기적을 만들도록 부름 받은 자이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고잔동 647-2)

☎485-0955, 401-2370(FAX) [www.ansan1.org](http://www.ansan1.org)